

재즈를 기반으로 한 트렌드 뮤직 Jazz Hiphop / Jazz R&B / Neo Jazz

재즈는 1900년 블루스와 랙타임으로 시작하여 밥,프리재즈,퓨전재즈,유럽피안재즈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아직까지 메인 스트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음악 장르이다. 재즈는 장르적 특성 외에도 재즈 화성과 리듬은 현대 대중음악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재즈에 비해 다소 늦게 탄생한 Hip hop, R&B 또한 대중음악의 큰 토대가 되는 음악이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음악장르라 할 수 있다.

흔히 재즈힙합, 혹은 재즈랩 이라 하면, 재즈 음악이 샘플링(기존의 음악을 가져다 쓰는 것)된 비트위에 랩을 하는 전형적인 힙합의 형식을 의미하지만 이번 영상수업에서는 재즈의 음악적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노래와 연주, 랩 뮤직의 대표적 아티스트와 곡들을 알아보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음악들과 그것들의 탄생 배경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재즈랩은 영국 재즈 퓨전 밴드 카고(Cargo)의 1985년 싱글 <재즈 랩(Jazz Rap)>에서 재즈 연주와 랩을 혼합한 것이 근원으로 여겨진다. 1)구루(Guru), 제이 딜라(J Dilla), 매들립(Madlib), 피트락 (Pete Rock) 과 같은 프로듀서 혹은 사운드메이커 들에 의해 발전하였으며, 마일스 데이비스(Miles Davis) 허비 행콕(Herbie Hancock)같은 재즈뮤지션들에 의해서도 다양한 음악적 시도가 있었다. 2)앰프 피들러(Amp Fiddler) 같은 연주인이자 사운드메이커이기도 한 뮤지션들 또한 크게 기여했다.

70년대 재즈펑크 시대를 이끌었던 로이 에이어스(Roy Ayers), 바비 험프리(Bobby Humphrey), 허비 행콕(Herbie Hancock)의 지대한 영향과 90년대 힙합의 황금기를 이끈 제이 딜라(J Dilla)와 같은 프로듀서들의 재즈에 대한 감각적 컷팅과 샘플링 센스는 연주자들에게도 영감이 되어 후에 로버트 글래스퍼(Robert Glasper), 로이 하그로브(Roy Hargrove), 코리 헨리(Cory Henry), 카마시 워싱턴(Kamasi Washington), 테레이스 마틴(Terrace Martin), 썬더캣(Thundercat), 카림 리긴스(Karriem Riggins), 퀘스트 러브(Quest love) 등과 같은 수많은 아티스트에게 영향을 주었다.

로버트 글래스퍼(Robert Glasper), 로이 하그로브(Roy Hargrove), 코리 헨리(Cory Henry) 등의 뮤지션은 전통적인 컨텐퍼러리 재즈로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트렌디한 힙합과 알앤비를 자신들의 음악에 녹이는 유닛 활동을 병행하였다. 로버트 글래스퍼 익스페리먼트(Robert Glasper Experiment), 로이 하그로브&알에이치팩터(Roy Hargrove & The RH Factor), 코리 헨리 펑크 어퍼슬(Cory Henry Funk Apostles) 이들은 다양한 영역의 뮤지션들과 합작하며 다양한 음악을 만들어 내기도 하며, 굉장히 실험적 음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1) Gang Starr의 멤버이자 솔로 앨범 Jazzmatazz 시리즈를 통해 실제 연주와 샘플링을 혼합한 재즈 랩을 선보였다

2) 조지 클린턴스 팔러먼트(George Clinton's Parliament)와 펑카델릭(Funkadelic)의 키보디스트. 후에 개인 앨범으로 프로듀서로와 솔로 아티스트의 면모를 보여줌, 제이 딜라(J Dilla)에게 MPC를 가르쳐 준 것으로도 유명하다

PB R&B 혹은 Acid R&B 등의 요즘 트렌드한 음악들은 재즈의 화성을 차용하여 특유의 몽환적 분위기를 연출하며 실제 알앤비나 힙합 뮤지션들의 라이브세션에 다양한 재즈 뮤지션이 등장한다. 특히나 요즘 트렌드인 3)로우파이(Lo-Fi)한 무드는 샘플링 사운드를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70년대 싸이키델릭 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제이 딜라(J Dilla)에게 4)엠펙씨(MPC)를 알려준 앰프 피들러(Amp Fiddler)가 싸이키델릭 뮤직의 슈퍼스타였던 조지 클리턴스 팔러먼트(George Clinton's Parliament)와 펑카델릭(Funkadelic)의 키보디스트였던 점을 생각해보면 연관을 지을 수 있다)

꼭 알아야 하는 주요 아티스트들

1. 질 스캇 헤론 (Gil Scott heron)



질 스캇 헤론(Gil Scott heron)은 소울 뮤지션이면서 알앤비, 재즈, 펑크의 요소를 많이 가미했다. 자신의 노랫말을 통해 정치·사회적인 쟁점과 이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으며 이 때문에 힙합의 하위 장르 중 하나인 '폴리티컬 힙합(political hip hop)'의 출현에 큰 영감을 준 인물로 꼽히며, 구어 위주의 보컬은 힙합에, 재즈와 펑크를 합성한 스타일은 네오 소울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여러 매체로부터 '힙합의 대부'라는 평을 받는다.

2. 제이 딜라 (J Dilla)



90's 힙합의 황금기를 이끈 프로듀서이자 랩퍼로 2006년 심장병으로 사망한 후에도 그의 작업물들이 꾸준히 나왔고 힙합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어 트라이브 콜드 퀘스트(A Tribe Called Quest), 드 라 소울(De La Soul), 버스타 라임즈(Busta Rhymes), 에리카 바두(Erykah Badu), 더 루츠(The Roots), 더 파사이드(The Pharcyde), 커몬(Common), 카니예 웨스트(Kanye West), 퍼렐 윌리엄스 (Pharrell Williams) 등 수많은 뮤지션들과 작업했으며 가히 그의 경력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지이다. 그의 프로듀싱은 후대 아티스트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 존 콜트레인 (John Coltrane) 과 같은 뮤지션들처럼 음악 역사의 큰 획을 긋는 뮤지션으로 평가 받는다.

3. 로버트 글래스퍼(Robert Glasper)



재즈 명가 블루노트의 뮤지션이자 피아니스트로 그의 피아노 테크닉은 칩 코리아(Chick Corea), 허비 행콕(Herbie Hancock)을 잇는 뮤지션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재즈의 DNA를 간직하면서도 본인의 트로오와 가장 트렌드를 주도 하는 음악을 선보이는 로버트 글래스퍼 익스페리먼트(Robert Glasper Experiment) 활동을 병행한다. 어쿠스틱한 악기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운드적 실험과 연주를 하는 것이 다른 뮤지션들과의 차이점이라 볼 수 있으며 재즈와, 힙합, 알앤비를 넘다는 그의 커리어 또한 모스 댄(Mos def), 질 스캇(Jill Scott), 비랄(Bilal), 에리카 바두(Erykah Badu), 랄라 해서웨이(Lalah Hathaway) 뮤직 소울차일드(Musiq Soulchild)등으로 증명되었다.

3) 저품질의 거친 사운드

4) 일본의 AKAI사에 만든 리듬 샘플러이며 패드에 소리를 저장하여 드럼 혹은 루프를 연주하는데 사용한다.